

固有名辭論에 관한 小考

趙 仁 賴

〈目 次〉	
序 言	
1. Frege에 있어서의 固有名辭	2.1.2 Wittgenstein의 ‘이름’
1.1 합수—대상 구분	2.1.3 Quine의 이름에 대한 文法的 再解釋
1.2 同一陳述	2.1.4 小 結(I)
1.3 이름의 의미	2.2 고유명사에 대한 자연언어지향적 접근
2. 고유명사에 대한 Frege의 · 反 Frege의 및 脱 Frege의 接近	2.2.1 Strawson의 反記述理論
2.1 고유명사에 대한 형식언어지향적 접근	2.2.2 Searle에 있어서의 ‘定同記述語들의 論理的 合’
2.1.1 Russel의 記述理論과 ‘論理的 固有名辭’	2.2.3 고유명사에 대한 Kripke의 脱 Frege의 접근
	2.2.4 小 結(II)
	結 語

序 言

20C에 들어와 一群의 철학자들은 言語와 世界의 相關 즉, 前者の 논리적 구조와 후자의 존재론적 구조의 상관에 대한 탐구에 매진하였거니와, 이러한 탐구에 있어 일익을 담당하는 철학의 한 分科가 바로 意味論(Semantics)¹⁾이다. 물론, Quine같은 이는 ‘Semantics’야말로 의미론(Theory of Meaning)에 적합한 이름이요, 이는 지시론(Theory of Reference)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제의한다.²⁾

그러나, 양자사이의 연관 및 (특히) 전자의 學的 地位에 관하여는 여러 상이한 입장에 있거니와, 이 中에서도 Bloomfield의 分類文法(taxonomical grammar)을 기반으로하는 Quine의 外延主義(extensionalism)과 Chomsky의 變形文法(transformational grammar)을 기반으로하는 Katz의 內包主義(intensionalism)는 가장 첨예한 대립을 노출하고 있다.³⁾ 한편, Hintikka 같은 이는 樣相論理의 개념들을 도입함으로써 양자사이의 古典的 對立을 완화시키는 방식을 취하는데, 이는 절대적 개념으로서의 論理的 必然性을 유지하고 이를 論

1) cf. A. Tarski (1944) p. 345.

2) Quine (1953b), p. 130.

3) cf. Katz (1975).

理外的인(extra-logical) 단어들 사이의 관계들에 의해 성립하는 연결들에 까지 확장하는 反面에 Quine이 타부시 하였던 내포적 實在들을 피하는 것이다.⁴⁾ 특히, 一次言語(first-order language)에 관한 Hintikka는 그 언어속에서 형성되는 文章들의 真理條件들이 單稱言辭(singular term)들의 지시대상들과 詞語들의 外延들에 의존하며 文章의 真理值는 그것이 포함하는 言辭들의 ('意味들'이 아니라) 지시대상들 및 外延들의 함수인 까닭에 指示論은 意味論(Theory of meaning)의 기저에 해당한다⁵⁾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은 一次言語에 관한 Frege의 입장이기도 하려니와,⁶⁾ Frege는 이러한 문맥속에서 그의 固有名辭(proper name: 以後 PN으로 表記하기도 함)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으므로, 論者는 固有名辭論(以後, PN論으로 表記하기도 함)의 현대적 연원에 해당하는 Frege에서부터 출발하여 문제가 제기되는 양상을 살펴보고, Frege이후에 나타나는 상이한 PN論들이 어떻게 분류되고 평가될 수 있는 가에 촛점을 맞추어 本稿를 서술해 나가고자 한다.

1. Frege에 있어서의 固有名辭

1.1 함수—대상 구분

Frege는 Bartlett (1964)의 간략한 언급대로 수학과 논리학을 합併하는 하나의 記號體系(즉, 함수적 체계)를 제의함에 있어 그 체계의 기초를 이루는 함수개념을 철학적으로 해명함으로써 그 체계를 정당화하려고 하였거니와, '不完全性(Incompleteness)'개념을 기준으로 한 함수와 대상의 구분은 논리학으로 하여금 전통적인 主語—述語 구분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탈피하게 하는 한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그리고, 함수에 대한 Frege의 논의들이 (Frege自身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에 의하여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평가됨⁷⁾에도 불구하고, 함수가 아닌 따라서 그것에 대한 표현이 어떠한 空白도 포함하지 않는 것은 모두 對象에 해당한다는 Frege (1891; p. 32)의 논의에 의거할 경우, 日常的 PN (ordinary proper name), 定冠記述語(definite description) 그리고 文章等은 모두 Frege의 이름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일단 언어적 표현들을 이러한 단순한 기준에 의하여 두 범주 즉, 對象語(즉, 이름)와 函數語(functional expression)로 구분해 놓고 보면, 'The function.....is not a function'이라는 이른바 Frege의 逆說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러한 역설의 발생은 Frege의 言語言—存在 平行論(linguistic-ontological parallelism)이 비판받는 한 계기가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본고에서는 이것이 언어적 표현

4) cf. Katz (1975) p. 121.

5) cf. Hintikka (1969).

6) '文章의 지시대상은 그것의 요소들의 의미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시대상들에 의하여 결정된다'

cf. Frege (1892b) & Dummett (1973) p. 159.

7) cf. Black (1954) & Marshall (1953).

들에 대한 Frege의 분류가 지닌 결함을 반영하는 한 사례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에 그치자.

한편, 여기서 언급되어야 할 또 하나의 사항은 *Begriffsschrift*에서의 함수와 子變項 (argument)에 대한 Frege(1879)의 논의이다.

- (1) 複合語들(complex expressions) 속에서 다른 것들에 의하여 대치되어지는 부분은 차별항이요, 그러한 과정속에서도 변치 않는 부분은 함수이다(p.13)

는 논의가 그것인데, *Begriffsschrift*以後에는

- (2) 개념(concept)과 관계(relation)가 함수의 특수한 경우이요, (一階함수(first-levelled function)와의 상관하에서) 子變項에 해당하는 것은 對象들이다⁸⁾

로 규정된다. 그러므로, (1)과 (2)에 의하면,

- (3) 복합어들속에서 다른 것들에 의하여 대치되어지는 부분은 대상들이요, 그러한 과정속에서 변치 않는 부분은 개념들 혹은 관계들이다.

1.2. 同一陳述(identity statement)

다른 한편, Frege(1891;p. 33)는 대상과 개념사이의 관계에 대한 논의에서,

- (4) 한 개념에 속하는(falling down) 대상들과 그렇지 않은 대상들 사이에 명확한 경계가 그어져야 한다

고 말하거니와, 이로부터

- (5) 전자의 경우를 표현하는 문장은 眞이요, 후자의 경우를 표현하는 문장은 假이다.

그런데, (3)의 경우, 하나의 대상이 여러 개의 이름들에 의해 지시될 수 있다면, 어떤 대상에 대한 하나의 이름이 동일한 대상을 지시하는 다른 이름에 의하여 대치될 경우 대상은 변하지 않은 상태에 있으므로, (4)와 (5)에 의하면 해당문장의 진리치는 변화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

이러한 논의는 Frege(1892b)의 兩大區分中의 다른 하나인 意味—被指體(sense-reference) 구분에 의해,

- (6) 우리가 문장中의 한 낱말을 다른 의미·동일한 피지체를 지니는 다른 낱말에 의하여 대치한다 하드라도 그 문장의 피지체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p.62)

와

- (7) 문장의 피지체는 그것의 진리치이다(p. 63)

로, 그리고 (6)과 (7)로 부터

8) cf. Frege (1891a) & (1891b)

- (8) 한 문장의 부분이 동일한 피지체를 가지는 표현에 의하여 대치될 경우, 그 문장의 真理值는 변하지 않는다(p. 64)

는 Liebniz의 ‘同一者 代入(substitutivity of identicals)의 原理’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 ‘동일자 대입의 원리’는 일차언어에 관한한 예외없이 적용될 수 있다.

여기서, 동일한 피지체를 가지는 표현들 사이의 관계가 文章化된 것이 바로 Frege의 同一陳述인 바, 그에게 있어서의 ‘同一함(identity)’은 대상들의 이름들 사이에 成立하는 관계이다. 결국, Quine (1953a; p. 75)의 언급대로 Frege에 있어 어떤 言辭가 同一陳述(이후, IS로 표기되기도 함) 속에서 사용될 수 있는 가의 여부는 그 언사가 이름으로써 사용되어지는 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규준(standard)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규준을 일단 인정한다면, 이후의 이름에 대한 논의는 이름들이 사용되는 IS를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1.3 이름의 意味(sense)

IS가 일단 동일한 대상에 대한 이름들 사이의 관계로 보아지면, Frege의 의미—피지체 구분에 따라 상이한 것은 이름의 의미이요,⁹⁾ 따라서 이름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Kripke (1972; p. 255)는 ‘Freg의 경우에 있어 고유명사는 단순히 略해진 혹은 위장된 정관기술어에 불과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러한 Kripke의 파악을 뒷받침 할 만한 언급이 있기도 하지만¹⁰⁾ 이름의 의미에 대한 Frege의 논의가 그와 같이 단순하게 처리될 수 있는 가는 여전히 의문스럽다.¹¹⁾ 왜냐하면, ‘同一함’에 관한 Begriffsschrift에서의 논의(p. 11)는 Russell式의 直面(acquaintance)에 의한 이름의 획득이 가능함을 지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Kripke 자신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Frege (1892b; p. 58의 註)는 동일한 PN에 대하여 상이한 정관기술어들이 그것의 의미로서 接合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논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이름의 의미에 관한 Frege의 논의를 Kripke의 典型으로 고정시킨다면, 이 전형화된 견해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경우들 즉,

- (9) PN이 存在陳述(existential statement; 이 후, ES로 표기되기도 함) 속에서 사용되는 경우,
- (10) 사실적 정보를 전달하는 IS속에서 PN들이 사용되는 경우,
- (11) 이 외 어떤 PN의 피지체가 어떻게 결정될 수 있나라는 물음이 제기되는 경우

들에 그 나름의 설명을 제공한다. 이에 관한 논의는 이미 Searle, Kripke 兩者에 있어 大同小異하게 행하여 졌으므로¹²⁾ 생략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언급하고 지나가

9) Frege의 sense-reference 구분을 받아들이면 그렇게 된다는 것뿐이지, IS에 관한 논의에서 sense-reference 구분이 요구된다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그러한 구분의 필요성은 Frege의 ‘oblique context’에 관한 논의의 단계에 가서야 발생한다.

10) cf. Frege (1892b) p. 58. ‘This serves to illuminate only a single aspect of reference……’

11) cf. Dummett(1973) p. 110.

12) Searle (1969) p. 164-165 & Kripke (1972) p. 256-257.

야 할 것은 PN에 대하여 Frege의 견해와 다른 견해가 제시될 경우 이 대안은 위의 세 경우를 모두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Frege의 견해는 Searle에 의하면¹³⁾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부딪힌다. 즉,

- (12) 정관기술어는 그것의 담지자에 대하여 단지 우연적으로 真이므로, 전자는 후자의 定義的 等值 (definitional equivalent)가 아니다.
- (13) 고유명사의 의미는 그 대상속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있어서는 다른 의미들을 가지게 된다.
- (14) 만약, 한 대상에 대한 완전한 기술(차라리, 그 대상에 대하여 가능한 모든 정관기술어들의 논리적 乘)을 PN의 의미로 간주한다면, 그 PN을 주어로, 하나의 정관기술어를 술어로 가지는 모든 진술은 분석적이거나 자기모순적이거나 둘 中의 하나가 된다.

그러면, (9), (10), (11)의 경우들 뿐만 아니라 (12), (13), (14)의 문제들에도 동시에 적절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 견해는 어떻게 가능한가? 이에 대한 논의는 일단 뒤로 미루고 Frege의 대상어—함수어 구분에 연유하는 또 다른 논의를 먼저 추적해보자.

2. 고유명사에 대한 Frege의, 反 Frege의 脫 Frege의 접근

지금까지 우리는 PN에 대한 Frege의 논의들을 살펴보았거니와, 사실상 Frege 자신의 논의들은 복합적인 시도들의 공존체이다. 가령, ‘……(고유명사의) 피지체가 동일한 한, 意味의 변화들은 용인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들은 논증적인, 학문에서는 피해져야 하며 완전한 言語에서는 나타나서는 안된다(Frege, 1892; p. 58의 註)’는 언급에서도 나타나는 바처럼, Frege는 한편으로는 Begriffsschrift와 같은 形式言語를 구축하고 이러한 형식언어를 모델로 하여 자연언어를 재구성하려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PN에서 나타나는 의미의 변화같은 자연언어적 양상과 이름으로서의 지위를 여전히 인정해 주고자 한다.

그러나, Frege의 PN論 속에 共存해 있는 이러한 복합적 지향들은 Frege 이후의 PN에 관한 여러 논의들에 있어 서로 다르게 경사지는 작업들로 보다 분명히 구별되어져 나타난다. 즉, Russell, Wittgenstein, Quine으로 이어지는 形式言語쪽으로 경사진 작업들이 그 하나이요, Strawson, Searle, Kripke 等을 함께 묶어볼 수 있는 自然言語쪽으로 경사진 작업들이 그 하나이다.

2.1 PN에 대한 형식언어지향적 접근

2.1.1 Russell의 記述理論(Theory of Description)과 ‘論理的 고유명사(logically proper name)’

Frege의 함수—대상 구분, 그리고 그에 평행하는 함수어—대상어 분류는 수학을 논리학으로 환원하고자하는 그의 기본적 의도를 구체화한 ‘Grundgesetze der Arithmetik’의 체

13) Searle (1969) p. 166-169.

계에 결정적 타격을 가하는 Russell의 逆說을 야기한다. 뿐만 아니라, 지시대상을 가지지 않는 정관기술어를 主語로 가지는 진술은 Russell(1905)의 分析에 의하면 그 진리치에 있어 모순적인 양상을 드러낸다. 결국, Russell에 의하면, 정관기술어는 Frege에서 와는 달리 이를 영역에서 제외된다. 뿐만 아니라, ‘Pegasus’와 같은 그의 지시대상을 갖지 않는 單稱言辭들을 주어로 가지는 진술들 역시 정관기술에 대한 分析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해체되고, 이러한 해체는 ‘Pegasus’와 같은 外形을 지니는 日常的 고유명사들에 까지도 확산된다. 그리고, Russell의 기준이론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PN에 대한 이러한 전반적인 해체를 통하여 생겨나는 것이 바로 그의 ‘논리적 고유명사’¹⁴⁾이다. 그런데, Russell에 있어 일종의 의미론적 분석의 소산인 ‘논리적 고유명사’는 그의 인식론적 경사인 현상주의적 요소와 결부되어 감각자료들(sense-data)을 기준하는 현상진술(phenomenal statement)속에서 나타나는 ‘This’ 等의 지시사를 그 一例로 가지게 된다.¹⁵⁾ 그러므로, Russell의 형식언어적 경사속에서 Frege의 대상어(즉, 이름) 영역은 기술이론이라는 여과장치를 거치면서 그 대부분의 일상언어적 영토를 상실하는 단계에 와 있다.

그리고, Russell은 일상적인 고유명사를 정관기술어에 연루시킨다는 점에서는 Frege의 입장위에 있으나, 그런 까닭에 일상적인 고유명사는 참된 이름(genuine name)이 될 수 없다고 보는 점에서는, ‘무엇이 이름이냐’는 물음에 관한한, 反 Frege의 입장을 걸고 있다. 결국, 자연언어에 관한 형식언어적 재구성을 한 단계 더 진전시킴에 있어, 그의 인식론적 변형을 동반하는 일상언어적 유입이 불가피했던 것처럼 보인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PN에 관한 Russell의 논의에서 나타나는 인식론적 혼입이 타당한가에 있지 않고 오히려 Russell 이후의 전개 즉 형식언어지향적 경사의 극단화에 있다.

2. 1. 2 Wittgenstein의 ‘이름(name)’

이름의 논의에 관한 Wittgenstein의 형식언어지향적 경사는 그의 초기저작인 ‘Tractatus’에서 찾아보아야 한다. Tractatus에 의하면, 한 명제의 진리치가 一定하게 결정되기 위해서는 定義에 의해 정관기술어와 동일시되지 않는 즉, 不可定義의 이름들이 먼저 확보되어야 하고 (Tractatus; 3.23), 이러한 이름들은 그것의 대상들을 자신의 意味(Meaning)로 가지게 된다(Trac; 3.203). 그러므로, Tractatus의 논의들이 PN論에 도입될 경우, Russell에 의해 정관기술어에 연루되는 일상적 고유명사들은 참된 이름이 아닌 것으로 제외됨이 당연할 것이다.

그런데, Tractatus에서 특기할 점은 Russell의 논의에서 와는 달리 인식론적 유입이 엄격히 배제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Tractatus가 지니는 논리적 엄격성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통제가 완벽하지 않음은 ‘This is 5R¹⁶⁾’과 같은 명제가 원자명제로 허용되고, 이는 Tractatus

14) cf. Russell (1918) p.200.

15) cf. Russell (1918) p.201.

16) R은 ‘redness’라는 質의 기본단위.

를 그 기저에서부터 흔드는 ‘color-exclusion현상’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물론, Tractatus가 가지게 되는 이러한 궁지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은 Wittgenstein 자신이 Tractatus의 체계中 ‘단순자(Simple 즉, Tractatus의 name의 대상)’ 개념을 따라서 畫像論(picture theory)에 의한 명제설명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결된 논의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This is 5R’과 같은 원자명제들이 갖는 樣相(Modality)이 보다 완화된 Tractatus의 논리체계속에 수용될 수 없는 가하는 것은 未知의 사항이려니와, ‘This is 5R’과 같은 명제가 원자명제로 허용되는 것이 과연 불가피했던가하는 의문이 남기 때문이다.

일단, 우리의 관심을 후자의 경우에 제한한다면, 후자의 의문은 바로 質(quality)의 度(degree)에 대한 진술을 量(quantity)에 관한 진술들의 論理的 乘으로 分析할 수 없는 가하는 의문으로 소급될 수 있다. 이것은 Wittgenstein의 ‘Some Remarks on Logical Form (1929)’에서 제기되었다가 부정적인 方向으로 처리되어졌던 문제이거니와, 이는 다시 세계(world)와 비교되어지는 것은 개개의 명제들이나 아니면 명제들의 체계이 나는 물음으로 환치될 수 있다. 여기서, 명제들의 체계를 선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면 이는 다시 명제들의 체계는 先天的(a priori)인가 아니면 後天的(a posteriori)인가라는 물음과 연결된다. 그리고, 이로부터 우리의 시선은 構文論(syntax)의 규칙들 특히, 문장들의 内部構文論(inner syntax)으로 향하게 된다. 결국, 우리의 논의는 앞에서 미지의 사항으로 유보했던 바의 논의와 연결되는 것이다.

과연, 内部構文論과 外部構文論(outer syntax)은 구분되는가? 구분된다면 어떤 기준에 의하여? 그리고, 양자는 하나의 構文論속에 담겨질 수 있는가? 담겨질 수 없다면 양자는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가? 本稿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답하고자 하지 않는다. 다만 양자가 하나의 체계속에 담아질 수 없다면, 하나의 外部構文論에 관한 논의가 그것이 의미론적 단위들(가령, 이름, 명제 等)에 대하여 어떤 조건들을 부여함으로써 内部構文論의 사항의 유입을 일단 배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따라서 Tractatus의 경우 이름과 要素명제(elementary proposition)에 대한 의미론적 조건들을 형식적인 차원에서 논구하고 일상언어와의 연관에 대한 논의들을 일단 유보함으로써 그의 구문론적 체계가 ‘color-exclusion현상’과 같은 내부구문론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의하고자 할 뿐이다. 이러한 경우, Tractatus의 論理的 構文論이 日常言語의 추론양식들을 전면적으로 규정하지는 못하게 되지만, 형식적 차원에서 그 논리적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한된 방식으로나마 日常言語의 分析에 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거부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제의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Frege 및 Russell에서 지적된 바있는 복합적 지향들中 형식언어적 지향의 극단화를 통하여 형식적인 차원에서 PN에의 의미론적 접근을 시도하는 한 典型이, 앞에서의 제의가 요구하는 제한을 수락한다는 의미에서의, 수정된

Tractatus에서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Tractatus의인 의미론적 분석을 통하여 나타나는 ‘이름’이 1.3에서 제시된 경우들에 어떻게 대처하는 가를 살펴보자. 우선, Tractatus의인 ‘이름’은 정관기술에 의하여 同意語의으로 定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12), (13), (14)의 문제들로 부터는 면제되어 있다. 그리고, Wittgenstein 자신의 言明대로 대상의 상이를 이름의 상이에 의하여 표현한다면¹⁷⁾ (10)의 경우는 Tractatus의 체계속에서는 배제될 수 있다.¹⁸⁾ 뿐만 아니라, Tractatus에 있어 Russell의 기술이론이라는 여과장치를 거쳐 생겨난 ‘이름들’의 연결들(concatenations)인 요소명제들이 일정한 진리치를 수용할 수 있으려면 그 이름들에 대응하는 대상들이 존재해야 하는 바, 이는 이름들의 단순함(simplicity)에 대응하여 單純者들(Simples)이어야 한다.¹⁹⁾ 그러므로, Tractatus에서 나타나는 이름들은 그 지시대상을 의미론적으로 보장받는 것이요.²⁰⁾ 그런 의미에서 (9)의 경우 역시 假陳述(pseudo-statement)로 배제된다. 그러면, 결국 문제로 남는 것은 (11)의 경우, 즉 Tractatus의 이름만에 의하여 그것의 대상(즉 단순자)을 어떻게 결정하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Tractatus에 의하면 이름들의 의미들(meanings)은 이름들을 포함하는 명제들에 의하여 설명된다. 즉, 이름들은 senses를 갖지 않는 바, 그것들의 meanings은 이름들의 적용(application)인 명제들속에서의 使用(use)을 통하여 보여져야 한다.²¹⁾ 따라서, Tractatus에 있어 지시대상의 결정은 이름의 指示와 이름의 使用사이의 밀접한 관계 그리고 명제는 그것의 意味(sense)를 보여준다는 Wittgenstein의 ‘보여줌의 원리’에 의해 독특한 방식으로 처리된다. 이러한 Tractatus의 方式을 어떻게 평가 수용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2.1.4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하겠다.

2.1.3 Quine의 이름에 대한 文法的 再解釋(reparsing)

우리는 Russell-Wittgenstein의 논의속에서 記述理論이 고안되는 배경과 그 적용과정 및 결과를 살펴보았거니와, Quine 역시 同系譜의 문제의식속에서 PN에 관한 논의를 전개했다. 그런 까닭에 Quine에 있어서도 진리치갭(truth-value gap)을 제거하는 문제가 기본과제로서 주어지는 데 그는 PN에 대한 문법적 재해석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²²⁾

가령, ‘a’를 單稱言辭로, 그리고 ‘.....a.....’를 순수히 指示의인 위치속에서 ‘a’를 포함하는 어떤 문장이라 생각하자. 그러면, ‘동일자대치의 원리’에 의해

(15) (x)(if $x=a$ and..... xthen..... a)

그리고, (15)는 ‘rule of passage’²³⁾에 의해,

17) Trac; 5.53

18) Trac; 5.533

19) Trac; 3.26 & 3.202 & 3.203 & 2.02.

20) Trac; 2.0211 & 2.021 & 2.026.

21) Trac; 3.262-3.3

22) Quine (1960) §37.

23) Quine (1952) p.119의 (8)

(16) If $(\exists x)(x=a \text{ and } \dots\dots x\dots\dots)$ then $\dots\dots a\dots\dots$

그런데, 自己同一性의法則(self-identity law)과 보편적 예화(universal instantiation)에 의하면 ‘ $a=a$ ’이므로,

(17) If $\dots\dots a\dots\dots$ then $a=a \text{ and } \dots\dots a\dots\dots$

(17)은 다시 존재일반화(existential generalization)에 의해,

(18) If $\dots\dots a\dots\dots$ then $(\exists x)(x=a \text{ and } \dots\dots x\dots\dots)$

따라서, (16)과 (18)에 의해,

(19) $\dots\dots a\dots\dots \text{ if and only if } (\exists x)(x=a \text{ and } \dots\dots x\dots\dots)$

가 된다.

결국, (19)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순수히 지시적인 위치에 있는 .單稱言辭 ‘ a ’는 等式(equation)의 우변에서 그의 표준위치(standard position)를 가지게 되고 다른 어떤 위치에서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 $\dots\dots a\dots\dots$ ’에 대한 이러한 轉記(transcription)은 단칭언사 ‘ a ’를 ‘ $=a$ ’의 형태에 있어 불해체적 일반언사(indissoluble general term)로 취급하는 문법적인 재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바로 等式 ‘ $x=a$ ’를 述語化(predication) ‘ $x=a$ ’로 해석하는 것인데 이러한 문법적 해석에 의해 ‘ a exists’는 $(\exists x)(x=a)$ 로, ‘ Fa ’는 $(\exists x)(x=a \text{ and } Fx)$ (즉 $(\exists x)(Fx \cdot Gx)$ 의 형태)로 轉記된다.

그러나, 이러한 轉記는 진리치캡을 제거하기 위한 理論的 要求일 뿐이지, 실천적인 강제사항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는 앞에서와 같이 재해석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실천적으로는 기존적인 형태의 이름들을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천적인 요구때문에 기존적인 단칭언사로서의 이름을 문법적 재해석에 기초를 둔 單稱記述(singular description)로 정의하는 보다 완화된 형태의 방안이 제시된다.²⁴⁾ 왜냐하면, 단칭기술은 Russell의 기술이론에 의하여 언제라도 해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定義되는 언사로서의 이름은 단칭기술과 同義語가 아니라 略號에 분과한 것으로 규정되며, 단칭기술속에 나타나는 이름은 물론 일반언사로 재해석된 것이다.

그러므로, Quine의 문법적 재해석이 Kneale式의 지시론과 달라지는 소이도 거기에 있다. 즉, Kneale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이름에 대한 定義는 ‘Socrates=The individual called “Socrates”’인 바, 이는 동의어규정으로서의 정의이며, 이때 단칭기술속에 나타나는 Socrates는 言及(mention) 되어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칭언사로서의 이름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해서, 적어도 Quine은 非循環(non-circularity)의 조건을 위반하고 있다는 式의 Kneale에 대한 Kripke의 原則論의인 비판²⁵⁾으로 부터는 면제되어 있다.

24) Quine (1960) §39.

25) Kripke (1972) p. 283-284.

한편, (9)에 대한 Quine의 설명은 앞에서 이미 언급된 바이거니와, (10) 역시 단칭기술들의 左右 배열에 의하여 무난히 설명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Quine에 있어서의 定義는 동의어규정이 아닌 분만 아니라, 일반언사로서의 ‘Socrates’等은 더 이상 해체되지 않는 言辭인 까닭에 (12), (13), (14)의 지적들은 Quine의 문법적으로 재해석된 이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들이다. 결국, (11)의 경우가 문제로 남는다. Kripke의 말대로²⁶⁾ ‘일반언사로서의 “Socrates”의 外延은 어떻게 결정되나?’는 물음이 여전히 유효하다. 결국, ““Socrates”의 지시대상은 어떻게 결정되나?’라는 단칭언사로서의 이름에 대한 물음이 일반언사의 외연결정에 관한 물음으로 移轉된다.

여기서, 언급되어야 할 것은 ‘Socrates’란 이름——단칭언사로서의 일반언사로서——이 가지는 唯一無二性(uniqueness)인데, Quine은 문법적 해석이후의 ‘유일무이성’의 문제를 다음과 같은 두가지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다.²⁷⁾ 그 하나는, 일반언사 역시 대칭성·전이성 등과 같은 우연적사실이 아닌 그 언사의 의미에 귀착되는 법칙들을 준수하는 만큼, 유일무이성도 ‘Socrates’와 같은, 소위 ‘이름’들에 해당하는, 일반언사들의 의미속에 함축되어있다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단칭언사로서의 ‘Socrates’를 다수의 대상들 즉, Socrates의 時空間的 部分들(spatio-temporal parts)에 대하여 真인 일반언사로 재해석하면, (y) (y is a socrates if and only if y is part of x)에서 대상 x의 유일무이성은 부분—전체 관계(part-whole relation)에 대한 논리로 부터 뒤따라나온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름의 유일무이성이 이러한 방식들로 설명될 때, 대상의 定同(identification)은 어떻게 가능한가? 물론, Quine에 대한 이러한 물음은 일반언사의 외연을 어떻게 定同할 것인가에 관한 그의 논의에 의해 설명되어야 한다. 가령, Quine에 의하면,²⁸⁾ ‘red’와 같은 일반언사를 가르칠 경우 우리는 ‘This is red’와 같은 直指的 진술(ostensive statement)의 반복을 통해, 학습자로 하여금 ‘red’라는 언사가 시 공간의 어떤 부분들에 적용되는지를 배우게 한다. 그러면, ‘Socrates’와 같은 이름으로서의 일반언사도 동일한 방식으로 배워질 수 있는가? 우선, 어떤 실존하는 인물의 이름 ‘X’를 문법적으로 재해석할 경우 우리는 그 인물이 우리의 面前에 있을 때마다 ‘This is X’라고 直指的 진술을 반복함으로해서 ‘X’라는 일반언사를 배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Socrates’와 같은 실존하지 않는 인물에 대한 이름의 경우, Socrates가 生存했던 紀元前의 아테네로 Time-machine을 통해 거슬러올라갈 수 없는 한, 우리는 ‘This is Socrates’와 같은 直指적 진술을 발할 수 없고, 따라서 또 다른 方法에 의하여 ‘Socrates’란 일반언사의 이해에 접근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서, 가능한 방법은 ‘Socrates’란 일반언사를 우리가 기준적으로 이해하고 있거나 할 수 있는 일반언

26) Kripke (1972) p. 343, n. 4.

27) Quine (1960) §38의 p. 182-183.

28) Quine (1953a)

사들에 의해 정의하는 것이다. 가령, ‘Socrates=the teacher of the writer of the Republic’로 할 경우, 우리는 ‘teacher’나 ‘writer’ 같은 일반언사들을 ‘rcd’의 경우와 유사한 경로를 통하여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Republic’ 역시 그 책자가 지금도 전해져 오고 있으므로 ‘This is the Republic’이라는 위치적 진술들의 반복적 수행을 통하여 알 수 있다. 결국 우리는 ‘Socrates’란 언사에 대한 이해에도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Quine에 있어서 단칭언사로서의 이름들은 어떤 내부구조도 갖지 않는 단순한 언사들이요.²⁹⁾ 따라서 이들은, 기술어들처럼 해체될 수는 없고, 문법적인 재해석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문법적으로 재해석된 일반언사로서의 이름들 역시 전자들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즉, 단순하고 불해체적인 것이다. 결국, ‘Socrates’와 같은 이름으로서의 일반 언사는 다른 일반언사들을 통한 이해를 거부한다.

이제, Quine에 있어서의 이러한 궁지는 어떻게 해소될 수 있나? 먼저, 이름의 단순성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탈출을 시도한다면, 문법적 재해석의 포기와 더불어 단칭언사로서의 이름으로하여금, 기술어들에 의하여 동의어적으로 정의되지 않는 방식을 통하여, 대상을 지시하게 하고, 그러한 지시가 直指的인 제한을 넘어서는 시·공간적인 전달연쇄를 통하여 수행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³⁰⁾ 물론, 이러한 방식에 의거할 경우, 진리치법의 제거라는 해당초의 목표로부터는 멀어질 수 밖에 없고 따라서 Quine의 形式言語化 양적 시도는 한결음 후퇴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름의 단순성을 포기하는 방향으로의 탈출이 제안될 수 있다. 즉, 다른 일반언사들에 의한 동의어적인 정의를 협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격의 정의를 협용한다면 구태어 이름이 문법적 재해석이란 방식을 통하여 처리되어야 할 명분이 없어진다. 왜냐하면, 이왕 이름이 복합성을 지니는 것이라면 단칭언사로서의 이름이 정관기술어들에 의하여 정의되지 못할 이유가 없고, 그러할 경우 Russell의 기술이론의 적용만으로도 진리치법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Quine은 Russell의 分析過程을 답습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2.1.4 小 結(I)

2.1.2와 2.1.3에서 우리는 Russell의 기술이론 이후 PN의 논의에 대한 기술이론의 적용과 더불어 생겨나는 두 전개 즉, Wittgenstein的 전개와 Quine의 전개를 살펴보았거니와 이들은 Russell의 형식언어 지향적 추구를 보다 철저히 한 두 分枝에 해당한다하겠다. 가령, Wittgenstein이 기술이론의 여파를 통하여 Russell式의 논리적 고유명사에 대한 추구를 인식론的 유입의 배제속에서 보다 철저히 했던데 대해 Quine은 기술이론을 극단적으로 밀고 나감으로해서 PN(단칭언사로서의 이름)을 제거하고자 했다. 즉, 기호논리적 체계와 그것의 해석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전자가 불가정의적——즉, 단순하고 따라서 진리치 결정에

29) Quine (1960) p. 180.

30) cf. Kripke (1972).

있어 불일정성을 유발하지 않는——이름들을 의미론적 분석의 과정을 통하여 확보함으로 해서, 量化論理를 代入的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의미론적 기반을 제공해 준다고 (그 것의 성공여부를 떠나) 볼 수 있는 데 反하여, 후자는 단정언사들로서의 이름들을 일반언사들로 재해석함으로해서 量化를 指示的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量化에 대한 이 두 가지 방식의 해석은 오늘날에도 대립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논의는 본고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Wittgenstein과 Quine양자 모두가 그들의 형식언어지향적 시도속에 자연언어적 사항의 혼입을 허용함으로해서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다. 가령, Wittgenstein의 경우 자연언어적 用例에 그의 체계를 적용함으로해서 체계전체의 동요를 야기하는 反例를 유발시키고 급기야는 그 체계를 포기하는 방향으로까지 나아갔거니와, 그의 논의속에 있는 自然言語的 사항들을 유보내지 제거하고 그의 논구를 엄격히 형식적인 차원으로 제한함으로해서 진리함수적 논리(truth-functional logic) 및 量化論理(quantificational logic)에 대한 하나의 의미론적 기반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앞에서 제외된 바 있다. 그리고, 2.1.2의 끝에서 미루어둔 바 있는 對象의 定同문제에 대한 Tractatus의 처리방식과 관련된 평가문제도 그러한 제의속에서 함축적으로 언급되었다 하겠다.

한편, Quine의 경우도 역시 ‘Socrates’와 같은 자연언어적 PN들의 用例에서 나타나는 진리치캡을 형식언어지향적 시도속에서 배제하기 위해 그의 ‘문법적 재해석’을 행하였거니와 이는 PN의 제거라는 자연언어의 사용속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제의하는 것인 한편, 실존하지 않는 이름들은 그의 문법적 재해석을 포기하게 하거나 명분이 없게 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므로, 그는 형식언어지향적 시도의 템포를 늦추지 않을 경우 PN論議에 관한한, Russell의 문체상황으로 복귀하게 될 것이요, 그 시도에서 한걸음 후퇴한다면 PN에 관한 더 이상의 논의는 이후에 분류 평가될 자연언어지향적 시도들에게 양도됨이 적당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Quine의 궁지는 결국 그의 형식언어적 지향속에 자연언어적 사항의 유입을 허용함으로써 빚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형식언어의 個體常項(individual constant)만을 문제집을 경우, 실존하지 않는 이름들이 제기하는 것과 같은 문제상황은 생겨나지 않을 것이요, 따라서 ‘문법적 재해석’을 통한 개체상황들의 제거역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2.2 고유명사에 대한 자연언어지향적 접근

우리는 2.1에서 형식언어를 모델로 하여 자연언어를 재구성하려는 형식언어지향적 접근들이 Russell의 기술이론을(보다 철저히) 적용함으로해서 PN은 참된 이름이 아니라 혹은 PN은 제거되어야 한다 等의 부자연스러운 논의들로 나아갈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자기배반적인 문제들에 직면함을 보았다. 그리고, PN에 대한 형식언어지향적 접근이 드러내는 이러

한 양상은 Russell의 기술이론이 과연 자연언어 특히 PN을 分析하는 도구로써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Russell의 기술이론에 정면도전했던 Strawson의 입장은 소급해서 주목하게 하거나, Strawson的 基調를 계승하고 있는 Searle의 PN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평가하게 한다. 그러나, 양자가 지니는 Frege的 기반은 그 자체내에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들에 부딪히고 이는 자연언어적 지향을 보다 철저히 하는 (Donnellan과) Kripke의 脫 Frege적 접근을 가능케 한다.

2.2.1 Strawson의 反記述理論

Strawson은 그의 'On Referring(1950)'에서 Russell의 기술이론에 대한 反論을 제기하였거니와, 그의 공격요체는 表現과 그것의 使用이 즉, 표현의 의미(meaning) 혹은 문장의 有意味(significance)와 표현의 지시함(referring) 혹은 문장의 主張(assertion)이 구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Russell의 기술이론은 이를 혼동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Strawson의 이러한 反記述理論의 입장은 PN을 정관기술어와 연결시킨다는 점에서 Russell과 동일한 Frege的 기반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Russell 및 Russell이후의 형식언어지향적 접근들이 PN을 해체 내지 제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던 데 반해, PN의 자연언어적 사용을 (진리치 결정에 대한 형식언어적 요구가 문제시 되는 경우에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물론, 이러한 정당화가 가능한 것은, Russell에 있어 정관기술어(따라서, PN)의 사용이 항상 그 정관기술어의 내용을 만족시키는 대상의 存在에 대한 주장을 함축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데 반해, Strawson의 경우 그러한 존재진술이 前題(presupposition) 될 뿐 주장되지는 않는다고 논의되기 때문이다. 결국, 그러한 전제가 충족되는 한 정관기술어 및 PN은 지시적 표현들로 사용되며,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지시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뿐 여전히 유의미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Strawson에 의하면, 지시적 표현들의 의미는 그것이 개별적인 문맥들에서 사용될 때 그 나름의 대상을 지시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인 까닭에,³⁰⁾ PN은 요구될 때면 항상 그 자신의 의미에 의하여 대상을 지시할 수 있는 정관기술어들로 대치될 수 있어야 하고,³¹⁾ 사람들이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각기 상이한, 그러면서도 앞에서의 ES를 전제하는, 정관기술어들이 대치될 수 있다. 즉, PN에는 하나의 복합적 기술이 대응하게 되고, 이에는 다시 존재진술들의 한 집합이 전제로서 대응한다. 그러나, Strawson은 PN의 성공적인 사용이 그 이름에 대응하는 전제들의 집합 모두의 충족에 의거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단지 그 집합中의 상당한(reasonable) 부분이 眞이면 그것으로 족하다.³²⁾ 뿐만 아니라, 이름에 대응하는 전제집합의 수 그리고 그것의 성공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부분집합의 수가 고정되지 않는 것 역시

30) Strawson (1950) p. 68.

31) Strawson (1959) p. 181, cf. Strawson (1950) p. 81-82.

32) Strawson (1959) p. 191-192.

Strawson에 있어서는 그의 ‘전체집합’ 개념이 지니는 결합이 아니라, 오히려 PN의 효율성을 드러내는 것이다.³³⁾

이와같이 해서 Strawson의 PN論에 있어 ES는 PN의 사용을 위한 전제내지 전체집합으로서, 그리고 IS는 각 이름에 대입가능한 定同記述語(Identifying Description)들 사이의 관계로써 설명되고, 각 이름의 지시대상은 그 이름에 대응하는 어떤 복합적 기술에 의하여 결정된다.³⁴⁾ 즉, 앞에서 언급된 (9), (10), (11)의 세 경우를 모두 성공적으로 설명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12), (13), (14)의 경우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에 대하여는 2.2.2에서 다시 언급하겠다.

2.2.2 Searle에 있어서의 ‘定同記述語들의 論理的 合’

Searle은 그의 言語行爲(speech act)에 관한 이론을 배경으로 Russell의 기술이론에 대하여 Strawson과는 상이한 方式으로 보다 결정적인 反論을 전개한다.³⁵⁾ 그의 공격을 지탱하는 바탕은 ‘命題的 行爲(propositional act)’와 ‘말하면서의 행위(illocutionary act)’와의 구별에 있다. 그에 의하면, 명제적 행위는 단지 말하면서의 행위의 부분으로서만 나타나는 데, Russell의 경우 명제적 행위에 속하는 지시함(referring)을 말하면서의 행위에 속하는 主張함(assertion)으로 간과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Russell의 이러한 오류를 말하면서의 행위들 일반에 적용하면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결과들이 나타나고 따라서 Russell의 기술이론은, 그것이 일상언어에 대한 실제적인 분석으로 제시되는 한, 결정적으로 거부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Searle은 제한된 방식으로 Russell의 기술이론을 수용하는 데 이는 바로 ES의 경우이다.³⁶⁾ 가령, 정관기술어가 주어인 일반적인 문장의 경우 정관기술어는, Strawson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지시적으로 사용되지만, ES의 경우에는 非指示的으로 쓰이고 따라서 기술이론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결국, Searle에 있어 ES와 같은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면, Russell의 기술이론은 거부되고, 따라서 PN은 설사 그것이 Frege의 방식으로 정관기술어들과 연관된다 할지라도 해체되지 않는 동시에 지시적으로 사용되는 그의 고유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바탕을 가지게 된다.

한편, Searle은 1.3에서 언급된 (9), (10), (11)의 경우들을 세개의 指示公理들(axioms of reference)로 제시하는데 이는 각기 ‘存在의 公理(axiom of existence)’, ‘同一의 公理(axiom of identity)’, ‘定同의 公理(axiom of identification)’들로 命名된다.³⁷⁾ 그런데, Searle에 의하면, 再定式化된 존재의 공리와 定同의 공리 즉,

(20) 회화자가 발언하는 표현이 적용되는 하나의 그리고 단지 하나만의(one and only one) 대상이

33) Strawson (1959) p. 192.

34) Strawson (1959) p. 181.

35) Searle (1969) 7.1 p. 159-162.

36) Searle (1969) p. 77-78.

37) Searle (1969) p. 77, p. 79.

존재해야 한다

와

- (21) 회화자가 발언한 표현에 의해 그대상을 定同할 수 있는 충분한 수단이 청취자에게 주어져야 한다.

中, (21)은 (20)의 한 부분인

- (22) 회화자가 발언한 표현이 적용되는 하나 보다 많지 않은 (not more than one) 대상이 존재해야 한다.

와 그 근저에 있어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³⁸⁾ 즉, 회화자가 어떤 하나의 대상을 유일무이하게 지시할 수 있다는 것은 청취자로 하여금 그 대상을 定同할 수 있게끔 그 대상에 대한 어떤 定同記述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다.³⁹⁾ 그러므로, Searle에 있어 PN을 지시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PN에 대응하는 定同記述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된다.

그리고, 어떤 대상의 定同을 가능케 하는 기술들이 대개 하나의 集合을 형성하므로, 지시적으로 사용되는 PN에는 定同記述들의 한 집합이 대응하게 된다. Searle은 이를 ‘이름 그 자체는 이 기술들의 집합에 논리적인 等值(logical equivalent)가 될 것이다⁴⁰⁾’라든가 혹은 ‘Aristotle이 일반적으로 그에게 부여되는 성질들의 論理的 合을 지닌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真이다⁴¹⁾’ 등으로 표현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PN의 기능과 기술의 기능을 동일시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는 PN에 대하여 어떤 엄격한 기준이 주어진다면 PN이 일종의 略記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될지는 몰라도, 실제로 있어서는 PN에 대한 기준들이 느슨한 상태에 있고 따라서 이러한 기준의 느슨함이 언어의 지시적 기능과 기술적 기능을 구별 가능케 하는 필수조건이라는 것이다.⁴²⁾ 결국, 지시적 기능체로서의 PN의 存在는 어떤 이론적 필연성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언어를 사용함에 있어 언어의 指示的 機能을 술어적 기능으로부터 구별할 실천적 필요성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⁴³⁾ 즉, Searle에 의하면 PN은, 대상의 定同을 위해서 PN 역시 어떤 기술적 내용과 연관되어야 한다는 요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기술들과 동일시 되어서는 안된다는, 서로 相反되는 두 요구 사이에 서있다. 그리고, Searle이 ‘(나의 PN論은) Mill과 Frege사이의 일종의 타협이다’⁴⁴⁾라고 말하는 것도 이러한 상황속에서이다.

38) Searle (1969) p. 82, 83, 87.

39) Searle (1969) p. 88, 2b(定同의 原理)

40) Searle (1969) p. 172.

41) Searle (1969) p. 173.

42) Searle (1969) p. 172.

43) Searle (1969) p. 174.

44) Searle (1969) p. 170.

그러면, 이러한 Searle의 입장은 1.3에서 제시된 경우들을 어떻게 설명하는가?⁴⁵⁾ (9)의 경우, Searle에 있어서 기술이론의 유일한 적용대상이므로, 그 PN에 논리적으로 등치인 定同記述들의 충분한 수를 만족시키는 대상이 존재하는가의 문제로 전환된다. 그리고, (10)의 경우는 두 PN들에 논리적으로 등치인 기술들의 집합들이 동일하거나 어느한 쪽이 다른 한 쪽을 포섭한다면 分析的이요, 그렇지 않다면 종합적인 진술로 설명한다. (11)의 경우는 이미 언급된 바와 같다.

한편, (12), (13), (14)의 경우들은 이들이 Searle자신에 의하여 언급된 사항들인 만큼 Searle의 PN論이 이들을 적절히 설명할 수 있음을 당연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우선, (13)의 경우는 Strawson과 Searle 양자에 있어 모두 자연스럽게 인정되고 또 그러한 양상을 자신들의 이론구성에 이용하고 있다. 가령, Strawson의 경우 각 사람이 동일한 이름에 대하여 상이한 定同記述을 대응시킨다는 것을 IS의 설명에 도입하고 있고,⁴⁶⁾ Searle의 경우에는 칭취자와 회화자가 同一한 定同記述들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는 논의가 한 이름에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다수의 기술들의 한 집합이 대응한다는 발상의 한 단초를 이루고 있는것처럼 보인다. 다른 한편, (14)의 문제는 Searle로 하여금 기술들의 논리적 乘이 아니라 논리적 합을 택하게 하는 한 계기가 된 것이다. 그리고, Strawson의 복합적 기술을 Searle式의 (기술들의) 논리적 합으로 해석하게끔 유도하는 것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12)의 경우가 Strawson-Searle의 PN論에 있어 ‘문제의 경우’로 부자된다, 왜냐하면, Searle 자신은 비록 각 定同記述은 그 대상에 대하여 우연적 真이나, 그 기술들의 論理的合과 이름의 논리적 等值는 필연적으로 真이라고 말하지만, Kripke의 지적처럼⁴⁷⁾ Searle의 필연성(necessity)이 어떤 내용을 지니는지가 분명하기 않기 때문이다. 만약, Searle의 이러한 언급이 존재의 公理와 定同의 公理가 그 근저에 있어 동일한 것으로 보는 그의 기본적 입장에 연유하는 것이라면, (12)에 대한 Searle의 대안이 야기하는 문제는 바로 Searle의 기본적 입장 자체에 내재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될 수 밖에 없다. 그리므로, 이름에 대응하는 집합전체의 數 그리고 이름의 성공적인 사용을 확보하기 위해 총족되어야 할 부분집합의 수가 지니는 유연성이 PN사용의 효율성을 드러낸다는 Strawson의 논의를 인정한다면, (12)의 경우를 설명하려는 Strawson-Searle의 입장(보다 정확하게는 Searle의 ‘定同의 原理’)에 대한 反例로는 (기준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어떤 기술도 만족시키지 않으면서도 그 자신은 실재하거나 실재했던 대상의 경우가 우선 제시될 수 있다. Kripke의 ‘요나(Jonah)’보기⁴⁸⁾가 바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만약 이러한 예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진다면 이는 Searle의 ‘定同의 原理’ 나아가서는 Strawson-Searle型의 의미론적 PN論에 대한 결

45) Searle (1969) 7.2.

46) Strawson (1959) p. 181.

47) Kripke (1972) p. 278-279.

48) Kripke (1972) p. 282.

정적인 反例로서 등장할 수 있다.

2.2.3 고유명사에 대한 Kripke의 脫 Frege의 접근

먼저, Kripke는 PN論이 의미론으로 사용되는 경우와 지시론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구분하거니와, ‘이름은 그에 대한 기술들의 집합에 의하여 동의어적으로 정의된다’는 의미론적 PN論을 強論, 그리고 ‘기술들은 그 지시대상을 결정하는 데 사용될 뿐 그 대상에 대한 이름과 同意語가 아니다’라는 지시론적 PN論을 弱論이라 부르자.

이와 같은 구분에 의하면, Frege의 PN論은 Kripke의 典型化를 따를 경우 強論으로 분류되는 바, 이에 대한 논의는 1.3에서 이미 행하여졌고, Kripke의 논의도 대동소이 하므로 생략될 수 있다. 그러므로, PN에 기술들의 한 집합이 대응한다는 Strawson-Searle의 PN論을 Kripke의 전형화를 따라 일단 強論으로 분류하면,⁴⁹⁾ 우선 2.2.2의 마지막에서 언급된 Searle의 ‘필연성’이 문제된다. 가령, Kripke에 의하면, 현실세계(actual world)의 어떤 사태가 모든 가능한 세계(possible world)들에서 다른 사태일 수 없을 때 그 사태는 必然的이며, 그렇지 않을 때는 우연적인 것으로 규정되는 바,⁵⁰⁾ 이에 따르면 Strawson-Searle의 PN論에서 PN에 대응하는 기술어들의 경우 (그것이 대상의 본질적인 성질들에 대한 기술이 아니라면) 기술어들의 집합전체가 그 대상에 대하여 우연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왜냐하면, 기술어들이 그 하나하나에 있어서는 우연적일 수 있음이 이미 허용되었거니와, 하나의 대상을 유일무이하게 지시할 수 있음과 그 대상에 대한 定同記述語를 제공할 수 있음을 동일시하고자 하는 Searle의 定同의 原理는 Kripke의 ‘요나’反例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경우 이미 유지될 수 없으므로 그 대상에 대한 기존적인 모든 진술들이 假일 수 있는 가능성 즉 기술어들의 論理的 합인 집합전체가 우연적일 가능성 역시 허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요나’의 경우, 흔히 그에게 관계지워지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요나가 존재했다고 주장하고 우리 역시 이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Kripke의 弱論의 경우, Searle의 定同의 原理를 거부함과 더불어 대상의 유일무이한 지시에 있어 定同記述語를 필수적인 것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즉, 정동기술에 의존하지 않는 유일무이한 지시가 가능함을 보여주고자 한다. 가령, Kripke 자신의 예에 의하면,⁵¹⁾ 어떤 사람이 우연한 장소에서 ‘R. Feynmann은 유명한 물리학자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자. 이럴 경우, 그 사람은 R. Feynmann을 유일무이한 方式으로 지시하고 있는가? 먼저, 그 사람이 그러한 이야기를 ‘Z’라는 사람으로부터 들었음을 아는 경우, 위의 지시문제는 ‘R. Feynmann은 Z에 의해 유명한 물리학자라고 이야기되는 사람이다’라는 방식에 의해 Z가 R. Feynmann을 유일무이하게 지시하고 있었는가에 의존하게 된다.

49) cf. Kripke (1972) p. 278-279.

50) cf. Kripke (1972).

51) cf. Kripke (1972) p. 298-299.

그리고, 이와같이 해서 'Z'는 'Y'에게 'Y'는 다시 'X'에게 等으로 Feynmann에 대한 그들의 지시를 소급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퇴행은 종결되는가? Strawson은 '……그러나, 이 퇴행은 무한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한다.⁵²⁾ 왜냐하면, 그는 이러한 퇴행이 결국 지시수행자를 포함하지 않는 존재진술로써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방식의 소급으로 순환이 피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점에서는 Kripke도 마찬가지다.⁵³⁾ 단지, 후자가 전자로부터 달라지는 중요한 차이점은 Strawson의 경우 지시수행자의 연쇄가 알려지고 명시될 것이 요구되어야 하는데 反해, Kripke는 이러한 요구를 삭제하고 사실상 어떤 이름의 사용자는 그가 한 공동체의 일원임으로해서 그 이름을 양도하고 양도받는 傳達의 한 連鎖(a chain of communication)를 통하여 그 이름이 지시하는 유일무일한 대상에 연결된다고 논의한다.

그러나, 이름이 대상에 연결되는 최초의 지시는 어떻게 수행되는가? Kripke는 이 최초의 지시행위를 태어난 아이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과 같은 '最初의 命名(initial baptism)'으로 설명하려 한다.⁵⁴⁾ 즉, 대상은 直指(ostension)나 기술어에 의하여 일단 고정됨으로 해서 명명된다. 물론, 이러한 方式의 '최초의 命名'은 가능한 방식들中の 하나라고 언급되거나 와, 일단 최초의 命名이 이루어지면 그 이름은 다른 지시수행자들에 연쇄적으로 전달되는 데 이때 이름을 전달받는 자는 전달하는 자와 동일한 대상을 지시하는 것으로 사용하고자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쇄적인 전달과정에서 다른 대상을 지시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속오 내지 遷脫이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은 항상 그것의 대상에 대한 '堅固한 指示者(rigid designator)'이다.⁵⁵⁾ 즉, 최초의 命名에서 사용된 기술어가 설사 '가능한 세계'에서 偏이 된다 할지라도 '현실세계'에서 한 대상에 붙여진 이름은 그 '가능한 세계'에서도 여전히 동일한 대상을 유일무이하게 지시한다.⁵⁶⁾ Kripke의 例처럼⁵⁷⁾ 자연수에 대한 5개의 공리를 고안한 사람이 Peano가 아니라 Dedekind임이 周知될 때, 우리는 'Peano'로 하여금 Dedekind를 지시하게 하지 않고 'Peano'는 그 5개의 공리를 고안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함이 자연스럽거나 와, 이는 그에게 연결되는 기술들의 真·偏와는 별도로 이름은 유일무이한 대상을 항상 견고히 지시하는 데 사용된다는 논의에 의하여 보장될 수 있다.

결국, 記述語는 (그것이 定同기술어이건 非定同記述語이건 간에) Kripke의 소위 '우연적 指示者(accidental designator)'로서 그 지시대상에 대하여 偏일 수도, 또 다른 대상을 지시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는 경우들을 가지는 데 反하여, 이름은 최초의 명명에 의해 일

52) Strawson (1959) p. 182, n. 1

53) Kripke (1972) p. 297-300.

54) Kripke (1972) p. 302.

55) Kripke (1972) p. 270, 277, etc.

56) Kripke (1972) p. 270, 276, etc.

57) Kripke (1972) p. 294-295.

단 유일무이한 대상을 지시하게 되면 전달과정에서의 邊脫들에도 불구하고 항상 동일한 대상을 지시하도록 사용된다. 그러면, ES와 IS는 어떻게 설명되는가? 이에 대하여는 2.2.4에서 언급하기로 하겠다.

2.2.4 小 結(II)

PN에 대한 자연언어지향적 접근의 현저한 특징은 Russell의 記述理論에 대한 反論에서 출발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출발의 배경은 자연언어를 단순히 理想의 언어로 간주되는 形式言語를 모델로 하여 재구성되어야 할 불완전한 언어로 보지 않고 그 나름의 독자적인 사용방식에 따라 분석하고자 하는 (형식언어지향적 접근의 기조를 이루는 태도와는 전혀 상이한) 태도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즉, 自然言語의 論理를 단순히 형식언어가 지니는 논리의 아류 혹은 서투른 모방으로 보지 않고 그 나름의 고유한 독자성 속에서 추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이론이 PN의 使用을 보다 잘 설명하는가의 평가기준은 단순히 그 이론의 이론적 업격성이만 의존할 수 없다. 오히려 日常言語의 사용에 대한 분석의 경우에는 그 사용이 지니는 실천적 효율성에 대한 고려가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으로 첨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평가기준에 있어서의 변화는, 가령 Strawson이 그의 前題集合을 논함에 있어 전체집합의 수 그리고 PN의 성공적인 사용을 보장해 주는 부분집합의 수가 고정되지 않음은 '前題集合' 개념의 결함이 아니라 오히려 PN사용의 효율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본다든가 Searle이 (Kripke의 전형화와는 달리) PN과 記述語들의 논리적 습은 단순히 동의어적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느슨한 방식에 있어서 논리적인 연관을 지닌다⁵⁸⁾라고 하는 논의들에서 잘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Strawson-Searle의 PN論에서보다 Kripke的 弱論에서 더욱 현저하다. 먼저, 그는 Searle의 논의속에서 PN이 지니는 한 딜레마 (즉, 對象을 定同하기 위해서는 記述語들과 연결되어야 하고 그러면서도 기술어들의 述語의 기능과는 상이한 指示的 기능을 가져야 한다는 상호배반적인 것처럼 보이는 두 요구들사이에 끼여있는 상황)를 PN과 記述語들의 연결이 어떤 의미론적 규정에 의하여 주어진다는 Frege의 發想의 거부로부터 극복하고자 한다.⁵⁹⁾ 그리고, PN이 지니는 지시적 기능은 그의 '가능한 세계' 개념을 매개로 한 '필연성'과 '우연성'의 구분과 그에 기반한 '견고한 지시자'와 '우연한 지시자'의 구분에 의하여 그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게 된다. 더구나, 그가 Strawson-Searle의 定同記述語의 優先性 및 Strawson의 指示遂行者的 明示에 대한 요구들을 인정하지 않고 지시의 唯一無二함을 공동체속에서의 전달연쇄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시도는 일상언어적 사용에 있어서 PN이 가지는 實踐的 유연성(flexibility)을 보다 강하게 드러낸다.

58) Searle (1969) p. 170.

59) cf. Kripke (1972)

그러나, PN의 일상언어적 사용이 지니는 자연스러움에 보다 가까이 밀착해 들어가는 Kripke的 弱論의 여러 強點들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장 역시 문제적 상황으로부터 면제되어있지는 않은 것처럼 보인다. 가령, 지금까지의 여러 PN論들에 우리가 요구해 왔던 (9), (10), (11)에 대한 설명에 있어, 이름들 사이의 IS는 이름들이 ‘堅固한 지시자’들로 사용되는 깊이에 필연적인 것이라는 Kripke의 주장⁶⁰⁾을 일단 인정한다하더라도 ES와 지시대상의 유일무이한 결정에 대한 적절한 설명은 어떻게 가능한가?

먼저, 지시대상의 유일무이한 결정은 일단 ‘最初의 命名’과 ‘傳達의 因果的 連鎖’라는 두 단계의 과정에 의해 설명된다. 그런데, 후자의 단계에 있어서의 指示의 유일무이함은 결국 ‘최초의 命名’의 성공적인 수행에 의존하는 바, 이 命名의 단계에 있어서는 直指를 포함하는 定同記述語⁶¹⁾의 動員이 불가피하다. 즉, Searle의 ‘定同의 原理’를 제한된 범위에서 나마 허용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Kripke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다.⁶²⁾ 그러나 Kripke 자신은 이러한 受容을 어디까지나 指示論의 것으로 제한하는 입장이므로 ES의 경우는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즉, ES의 경우 이름이 記述語들과의 어떤 의미론적 규정을 떠나있는 이상, 그 대상의 존재는 이미 그 대상에 대한 기술적 사실들의 真否에 의존할 수 없게 되고, ‘요나’ 보기에서와 같이 學者들의 연구가 지니는 公信力, Kripke의 전달연쇄가 지니는 歷史的・社會的 公信力, 그리고 대성이 현존하는 경우에는 그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우리들의 直觀力 等에 호소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ES가 Kripke에 있어 ‘문제적 상황’으로 부각되는 것은 한편으로는 定同原理에 의거한 Searle의 의미론적 PN論에 대한 거부와 연관되는 것이기도 하려니와,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가지는 그리고 定同할 수 있는 대상들로 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나서야 우리는 어떤 것들이 그 대상들에 대하여 사실일 수 있었는지를 물을수 있다’⁶³⁾는 논의와 연관되어있다. 그리고, 이 두 연관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이는 ‘의미는 指示에 우선한다. 지시는 의미에 의한 것이다’⁶⁴⁾라는 Searle의 Frege의 입장과 ‘Wittgenstein은 Tractatus에서 대상들은 사실들에 독립적으로 命名될 수 있으며 사실들은 대상들의 組合들(combinations)이다라고 말했을 때 사실과 대상사이에 환원불가능한 형이상학적 구분을 만들었다. ……그러나, 대상들은 사실들에 독립적으로 命名될 수 없다’⁶⁵⁾는 Wittgenstein에 대한 그의 비판을 고려할 때 분명해진다.

결국, Searle의 定同原理에 대한 主張와 Kripke의 拒否 및 그에 따른 양자의 PN論에서의

60) Kripke (1972) p. 305-308.

61) Searle (1969) p. 86.

62) Kripke (1972) p. 290.

63) Kripke (1972) p. 273.

64) Searle (1969) p. 92.

65) Searle (1969) p. 93. 이 논의는 Wittgenstein의 Tractatus에 대한 타당한 비판이 아니다. 이 공격의 화살은 오히려 Kripke의 입장으로 향해야 할 것이다.

相異은 전자의 事實優先的 존재론과 후자의 對象優先的 존재론 사이의 存在論的 相異에 대응하는 것이다.

結　　語

PN에 대한 Russell 및 Russell이후의 형식언어지 향적 접근에 있어서는

- (a) 형식언어를 모델로 하여 자연언어를 재구성한다는 Frege의 언어철학적 입장과
- (b) PN에 대한 Frege의 의미론적 규정

이 그들 논의의 기저에 놓여있다.

먼저, Russell과 Wittgenstein의 경우는, (a)와 (b)를 모두 받아들였고, 따라서 PN은 기술이론에 의하여 해체됨과 동시에 참된 이름이 아닌 것으로 규정된다. 그리고, Quine의 경우, (a)는 받아들이나 (b)는 거부한다. 그런데, 그의 논리적 존재론적 입장은 단칭언사들(singular terms)의 제거를 요구하고, 따라서 PN은 문법적인 재해석을 거쳐 일반언사(general term)로서의 이름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이 각기 자기배반적인 문제들에 부딪침은 이미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거니와, 이러한 국면은 그들의 작업원칙에 해당하는 (a)사항 자체에 대한 의심을 불러 일으킨다. 그런데, (a)는 하나의 일반적인 언어철학적 태도이거니와, 그러한 태도에 대한 어떤 결정적인 평가를 내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본고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항이다. 그러므로, 본고는, PN에 관한한, (a)에 의거한 논의가 원칙적인 난관에 부딪침을 지적하고, 자연언어지 향적인 轉回에 보다 적극적인 평가를 내리고자 한다.

한편, Russell의 記述理論에 대한 反論과 더불어 시작하는 자연언어지 향적 작업은 (a)와 (b)의 수용에 있어서 완화된 입장을 취한다. 가령 Strawson과 Searle의 경우, (a)의 엄격한 수용을 거부하고 자연언어자체의 고유한 논리를 인정하는 한편, PN에 대하여 하나의 기술어 혹은 기술어들의 논리적 乘이 아니라, 그들의 논리적 핵심을 연결시킴으로써 PN 사용의 유연성을 의미론적인 규정속에서 포착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러한 완화된 시도역시 Kripke의 反例들에 부딪히거니와, Kripke는 이름과 기술어들을 지시론적으로 연관시키는 脫Frege의 접근을 통하여 새로운 PN論을 모색한다.

그러나, 자연언어지 향적 경사속에서 나타나는 두 PN論의 相異가 결국은 存在論의 기반의 相異에서 비롯함이 드러난다. 그리고, 이러한 파악과 더불어 PN에 관한 논의는 하나의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수 있는 地平이 열린다.

參 考 文 獻

- Bartlett, J. (1964) "On Questioning the Validity of Frege's Concept of Function" Klemke, ed. (1968)
- Black, M. (1954) "Frege on Functions" Klemke, ed. (1968)
- Donnellan, K. (1970) "Proper names and Identifying descriptions" *Semantics of Natural Language*, Davidson & Harmann, eds. (D. Reidel, 1972)
- Dummett, M. (1973) *Frege: Philosoph of Language* (Harper & Row)
- Frege, G. (1879) "Begriffsschrift", Geach & Black eds. (1952)
- (1891) "Function and Concept", Geach & Black eds. (1952)
- (1892a) "On Concept and Object", Geack & Blach eds. (1952)
- (1892b) "On Sense and Reference", Geack & Blach eds. (1952)
- Geach, P. & Black, M. (1952) *Translations from the philosophical writings of G. Frege* (Basil Blackwell)
- Hintikka, J. (1969) "Semantics for propositional Attitudes" *Models for Modalities* (D. Reidel)
- Katz, J. J. (1975) "Logic and Language: An Examination of Recent Criticisms of Intensionalism" *Minnesota Studies in the Philosophy of Science Vol. VII*, K. Gunderson, ed. (Minnesota U. P., 1975)
- Klemke, E. D., ed. (1968) *Essays on Frege* (Illinois U. P.)
- Kripke, S. (1972) "Naming and Necessity" *Semantics of Natural Language*, Davidson & Harmann, eds.
- Marshall, W. (1953) "Frege's Theory of Function and Object" Klemke, ed. (1968)
- Quine, W. V. (1952) *Methods of Logic* (RKP)
- (1953a) "Identity, Ostension and Hypostasis" *From a Logical Point of View* (Harper & Row, 1961)
- (1953b) "Notes on the theory of Reference" *From a Logical Point of View* (Harper & Row, 1961)
- (1960) *Word and Objekt* (M.I.T.)
- Russell, B. (1905) "On Denoting" *Logic and Knowledge*, Marsh, R. S., ed. (George Allen and Unwin, 1968)
- (1918) "The Philosophy of Logical Atomism" *Logic and Knowledge*, Marsh, ed.

- Searle, J. (1969) *Speech Acts* (Cambridge U. P.)
- Strawson, P. (1950) "On Referring" *The Theory of Meaning*, Parkinson, G.H.R., ed.
(Oxford U. P. 1968)
- (1959) *Individuals* (Methuen)
- Wittgenstein, R. (1921) *Tractatus Logico-Philosophicus* (RKP, 1972)
(1929) "Some Remarks on Logical Form" *Essays on Wittgenstein's Tractatus*, Copi & Beard, eds. (RKP, 1966)